

조공선이 드나들던 망장포

망장포는 한적한 어촌 마을의 아담한 포구이다. 하지만 고려시대 때 이 포구는 중산간의 목마장에서 키운 말이나 제주 사람들에게서 세금으로 거둬들인 물자를 원나라로 실어 날랐던 조공포였다.



신례로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51-17 ~ 남원읍 신례리 1143-1(약 3.9km)

하례로 |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30 ~ 남원읍 하례리 1300-2(약 7.2km)

하례망장포로 |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309-1 ~ 남원읍 하례리 64-3(약 0.7km)

공천포로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77-1 ~ 남원읍 위미리 4158-1(약 1.6km)

하신로 |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87 ~ 남원읍 신례리 830-4(약 3.4km)

생기악로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506-1 ~ 남원읍 위미리 3840(약 1.7km)

신례천로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734-10 ~ 남원읍 신례리 2081-3(약 3.3km)

신례로/하례로 | 신례리와 하례리

신례리와 하례리는 예전에 호촌(狐村)이라 불리던 하나의 마을이었다. 그러다 19세기에 들어 예를 존중하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예촌으로 고쳤다고 한다. 그 후 동쪽마을은 신례리, 서쪽마을은 하례리로 나뉘어져서 지금껏 전해지고 있다. 신례리 마을의 명칭을 반영한 **신례로**는 해안가인 공천포에서 시작해 제주공천포 전지훈련센터와 신례초등학교를 지나 마을 안으로 이어진다.

하례로는 쇠소각의 동쪽에서 시작해 하례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길이다. 하례리는 신례리와 함께 호촌이라 불리다가 오지리(烏旨里)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고 나니 호촌리와 계속해서 신경전이 생겼다. 현감을 찾아가 물어보니 각 마을이 첫 글자인 여우와 까마귀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에서는 까마귀 오(烏)자를 지우고 대신 벽오동나무 오(梧)를 써 바꾸었다고 한다. 이후 다시 하례촌으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하례망장포로/공천포로 | 망장포와 공천포

하례망장포로는 일주동로에서 하례리의 해안가에 있는 망장포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망장포는 고려시대 제주도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 제주 사람들에게서 걷은 물자나 가축들을 원나라로 보내기 위해 이용했던 포구라고 한다. 당시 제주는 고려의 땅이지만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미묘한 위치에 있어서 원나라와 고려 조정에 이중으로 진상품을 바쳐야 하는 처지였다. 그래서 제주의 해안포구에는 원나라에 물건을 실어 나르던 곳이었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전한다. 망장포라는 이름은 왜적의 침입이 심했을 때 해안을 감시하는 방어시설이 설치되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는 그물을 많이 친다는 뜻으로 강장포라고 불렸다. 포구 인근에는 바다에 다니는 사람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던 당이 있었다고 전한다.

망장포에서 동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공천포가 있다. **공천포로**는 하례리의 해안가를 지나며 공천포로 이어진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솟아나는 용천수가 깨끗하고 물 맛이 좋아 ‘맛이 좋은 물을 바친다’는 뜻인 공샘이로 불리다 그것이 변하면서 공천포가 되었다고 한



망장포



영등물

다. 공천포의 용천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등물이다. 영등물은 특이하게 모래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다. 가뭄이 심해도 이곳만큼은 물이 솟아났다고 한다. 지금은 주변의 공장들로 인해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공천포의 모래는 삼양검은모래 해변처럼 검은색을 띤다. 이 모래에 찻잔을 하면 신경통이나 관절에 좋다고 알려져서 예전에는 여름이면 모래사장에 누워 모래찻잔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전한다.

공천포 인근에 있는 ‘왜왓’이라고 불렀던 곳이 있다. 이곳은 기와를 굽던 곳이었다. 해안가에서 솟아나는 좋은 물과 더불어 좋은 흙이 있어 기와를 굽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예전의 기와 조각들이 종종 발견된다고 한다.

하신로/생기악로 | 예촌망과 생기악

하례망장포로 서쪽 해안가에서는 신례리와 하례리를 연결하는 **하신로**가 시작된다. 이 길의 인근에는 해안가에 솟아있는 오름인 예촌망이 있다. 예촌망은 예전에 마을 이름을 따서 호촌봉, 호촌망이라 불렀다. 마치 여우와 닮은 지형이라는 의미이다. 조선시대에는 정상에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어 주변의 봉수대와 교신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과수원으로 개간되면서 방풍림들이 둘러싸고 있어 주변의 경관을 보기가 쉽지 않다.

신례리의 오름으로는 생기악이 있다. 생기악의 남쪽을 지나는 **생기악로**는 이 오름에 인접한 길이라는 의미이다. 생길리오름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름의 유래는 알려지지 않는다. 오름의 중턱에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동굴이 있다고 한다. 생기악 오른쪽에는 건천인 중남천이 흐르는데 이 하천으로 위미리와 경계를 이룬다.

신례천로 | 신례천 생태숲길

신례천로는 중산간동로의 신례교에서 신례천을 따라 북쪽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신례천은 한라산 동쪽의 사라오름 부근에서 신례리의 해안가인 공천포까지 흐르는 긴 하천이다. 신례천 하류에서는 신례리와 하례리가 경계를 이룬다. 신례천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오름과 역사문화자원 등을 연결해 신례천 생태숲길이 구성되어 있다. 과거 목마장의 흔적과 솟가마터, 일제강점기 때의 표고버섯을 재배했던 현장을 비롯해 곤충체험관, 이승이오름, 계곡 등을 만날 수 있는 생태탐방로이다.